

#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 실패한 행정 극치”

## 광주시의회 임시회, 인선 과정·부실 검증 질타 “인사원칙 새로 만들고 내부인사 많이 발탁해야”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장기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일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주경남(민·서구4) 의원은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해 정책입안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실패한 행정정책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기공백 상태에 있는 일부 산하 기관장 임명은 민선 6기를 갈무리하는 시점에서 외부 인사 보다는 내부 인사 발탁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집(민·비례) 의원은 “산하기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탈세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에 맞춰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들의 지적은 운영현 광주시장이 올해 초 8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일괄 사표를 수리한 뒤 재인선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나오는 등 매끄럽지 못했던 데 따른 것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임명된 것을 비롯해 4월에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3월에는 교통문화연구원 원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광주여성재단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무려 3차례 공모 절차를 거친 뒤 임미봉 여성재단 대표

후보자가 청문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상태인 곳은 시 산하 최대 공공기업인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등 2 곳이다.

도시공사는 2월10일 1차, 3월14일 2차 공모에 나섰으나, ‘셀프 추천’ 등으로 1차 공모가 무산된데 이어 2차 공모도 후보자의 크고 작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면서 결국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7인의 임원추천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면서 후보자 공모에 앞서 임원추천위원 재구성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재단도 지난 2월 지명한 이사장 후보 2명에 대해 광주시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뒤 일부 임원추천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중도 사임하면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이 시급하지만 두 달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는 김동

찬(민·북구5) 의원이 사이버 음란물과 인터넷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없는 정보화 청정지역 광주를 위해 관련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김보현(민·서구2) 의원은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에, 이정현(국·광산1) 의원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2016년도 광주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광주시 빅데이터 활동에 관한 조례안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한 임미봉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文대통령, 정동채 전 장관 인도·호주 특사 파견

### “다문화 협력외교 의지”

광주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사진)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와 호주 특사로 선임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도와 호주에 15일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특사는 인도·호주와의 협력강화 의지가 담긴 대통령 전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맬컴 터블 호주 총리 등 고위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에서 인도·호주에 별도 특사를 파견기로 한 것은 다문화협력외교를 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의 특사 선정 이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정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 분야에 광장한 전문성을 발휘했고 개인적



으로 그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도·호주는 새로운 한류와 관련해 비전이 있는 지역이라 그런 전 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사는 15일 출국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철민 의원과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수행대 표단에 포함됐다.

광주 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 특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겸 혁신위원장을 맡아 비엔날레 개혁과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외곽조직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와 국민성장연구원 이사회 의장을 맡아 대선 막후에서 정 특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우박 피해도 보험 보상을”

###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우박이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시설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우박 피해 시설물도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내린 지름 2~10cm의 우박으로 5개 시·군에서 1891ha의 농작물과 하우스 시설 288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담양·곡성·화순의 시설하우스 피해농가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보험금의 86%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 성격의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재해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정됐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새벽 영국 런던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건물 ‘그렌펠 타워’의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삼시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번진 뒤 건물 전체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14일 오후 8시 현재 6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입원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런던 27층 아파트 불...붕괴위험 속 참변 우려

### 건물 대부분 불에 타

14일(현지시간) 새벽 영국 런던의 27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큰 불이 났다. 대규모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화염이 건물 전체를 덮어 붕괴 위험이 닥친 가운데 대피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갇혀 참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를 조금 넘어 런던 서부 래티머 로드에는 27층짜리 아파트 건물인 ‘그렌펠 타워’의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삼시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번진 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런던 소방당국은 소방차 40대와 소방관 200명을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나섰다. 4시간여가 지난 새벽 5시 현재 불길이 아직 남아 있다.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버려 건물이 무

너지 내릴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인명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많은 사람이 여러 유형의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창가로 나와서 구해달라고 절규하는 주민들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BC는 관할 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120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이 난 건물은 통제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거주자 수백 명이 모여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화재 목격자인 조지 클라크는 BBC방송 라디오5 인터뷰에서 “가슴 아프다”며 “건물 꼭대기에서 (살려달라고) 불빛을 흔드는 사람을 봤는데 탈출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장 근처에는 구급차 20대가 출동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중대 사고’(major incident)를 발표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두 차례 도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발생해 치안에 대한 불안감, 경계심이 고조된 상태다.

/연합뉴스

## 최소형 전기차 생산 캠퍼스 등 3곳

### 영광 대마산단에 2158억 투자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14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최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등 3개 기업과 215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모두 영광 대마산단에 투자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520명이다.

협약식에는 박영태 (주)캠시스 대표, 김태범 (주)화진바이오텍 대표, 이진욱 (주)창성케미칼 대표,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영광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주)캠시스는 대마산단 3만3058㎡ 부지에 2022년 말까지 4륜 승용 최소형 전기차 등 연간 3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5개 차종을

개발·생산할 예정이다. 총 2000억원(1단계 422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주)캠시스는 인천에 본사를 둔 현대폰 카메라 모듈 및 전장-IT 전문기업이다. (주)화진바이오텍은 전남지역에서 아로니아 재배 3농가가 출자해 지난 1월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대마산단 3305㎡ 부지에 12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연간 2000t 이상의 진공 동결 건조 시설 2대를 갖춘 국내 최초의 기능성 아로니아 효소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주)창성케미칼은 대마산단 6612㎡ 부지에 38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건축 용 단열재 원단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4차 산업혁명 ‘정부혁신 거점 육성’ 광산구·강진군 선정

행정자치부는 15일 광주 광산구와 전남 강진군 등 지방자치단체 5곳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거점 지자체 육성’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된 5개 지자체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강진군을 비롯해 경기 안양시, 서울 구로구, 경기 오산시

이다. 지자체에는 총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오지 마을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주 광산구는 다른 지자체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표준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사점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의원 환영  
6 743㎡ | 전문병의원 및 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